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소방대원· 지역 주민 구호 물품 즉시 지원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현장지원 총력”

2026. 7. 19.

- **쿠팡, 화재 직후 소방대원 및 지역 주민 현장 지원..”소방대원 및 주민 지원 최우선”**
- **지역 주민 대피소에 매트리스, 속옷,구호물품 지원 아침~저녁 식사 제공**
- **현장 소방대원 위해 생필품과 간식,방진마스크 등 실시간 제공**
- **“지자체 등과 지속 논의 거쳐 현장 필요 물품 적극 지원”**

2026. 07. 19. 서울 -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지역 주민과 소방관 대상으로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다. 쿠팡은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쿠팡은 19일 화재 발생으로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18일 저녁부터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매트리스 100개, 속옷 100여점, 물화장지·티슈 수백개, 컵라면 500개 등을 대피소에 전달했다. 쿠팡은 19일 아침을 시작으로 대피소 주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등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은 긴급 구호거점으로 2000세트 규모의 구호물품을 비축한 세종 풀필먼트센터에서 18일 밤 구호물품 200세트를 대피소 인근 쿠팡 물류시설에 비축한 상태다. 긴급구호 물품은 차렵이불·베개·수건·양말부터 압축 물티슈·치약·칫솔·비누·접이식 3단 매트리스 등으로 구성됐다. 위생·보온·수면 등 대피소에 임시 체류하는 주민들이 초기 대피소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주민들이 추가 물품이 필요할 경우 즉시 보급할 방침이다.

쿠팡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칫솔과 충전기 등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인천 서해구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